

I. 통상현안정보

■ 日 싱크탱크의 하반기 이후 엔화 환율 전망

- '01년도에 달러당 124.96엔(연간 평균 기준)하던 엔화환율은 '03년도에 113.15엔, '04년도 1월에는 월간 평균 106.48엔으로 엔고가 심화된 바 있으나 이후 8월 현재 110.36엔으로 재차 안정세를 보여오고 있음.
- 엔화환율 동향은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 근년의 일본경제는 디지털경기에 힘입어 수출, 생산, 설비투자 호조 등 기업부문 주도에 의한 경기 회복에 의존해오고 있는 것이 특징임. 따라서 엔고가 될 경우 일차적으로 경기회복을 주도해오고 있는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어 모처럼의 회복세를 꺾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본 경제에 큰 타격요인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올 들어 일본의 주요 수출기업들은 사내 채산환율을 달러당 105엔대 전후로 책정하고 해외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오고 있는데 최근 환율은 대략 달러당 110엔대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해오고 있어 해외경제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 한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최근의 엔화환율 추이 >

(단위: 엔/1\$)

구분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달러당 엔화환율	124.96	121.94	113.15	106. 48	106. 55	108. 62	107. 25	112. 35	109. 47	109. 36	110. 36

* 주 : 회계년도 기준

- 향후 엔화환율 추이와 관련 일본 주요 민간연구기관의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올 가을까지는 미국 경기의 감속 우려와 이에 따른 대폭적인 금리인상 시기 후퇴가 달러 약세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아울러 중국 등 해외경제의 감속에 따른 일본의 수출 신장 둔화, IT 관련분야에서의 채고 증가 등 국내 경기의 감속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어 이것이 엔고압력을 서서히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美大選을 둘러싼 불투명감이 뿌리깊게 잔존하고 있어 당분간은 110엔을 중심으로 일진일퇴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하반기 이후는 미국·중국 성장률 둔화의 영향으로 일본의 수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고, 하절기 올림픽특수 종료에 따른 IT관련 수요의 증가세 둔화 등을 배경으로 국내경기의 회복 모멘텀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상기 요인에 수반되는 외국인의 對日 주식투자 둔화 등을 배경으로 엔고 압력을 비교적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주요 민간 싱크탱크의 엔화환율 전망 >

(단위 : 엔/1\$)

연구기관명	3개월후	6개월후
일본종합연구소 마키타 수석연구원	111엔	113엔
CSFB (CREDIT SUISSE FIRST BOSTON) 오가사와라 수석연구원	115엔	117엔
信金中央金庫 종합연구소 사이토 수석연구원	105~120엔	110~125엔
다이와종합연구소 가메오카 수석연구원	114.10엔	117.60엔
東京三菱銀行 후카야 수석연구원	112엔	113엔
미즈비시종합연구소 고토 수석연구원	108.8엔	108.3엔

* 주 1 : 전망시점은 '04년 8월말 현재

* 주2 : 미즈비시종합연구소는 '04년도, '05년도 연간 전망치 기준

(문의처 : 도쿄무역관 신태철 stc69@kotra.or.kr)